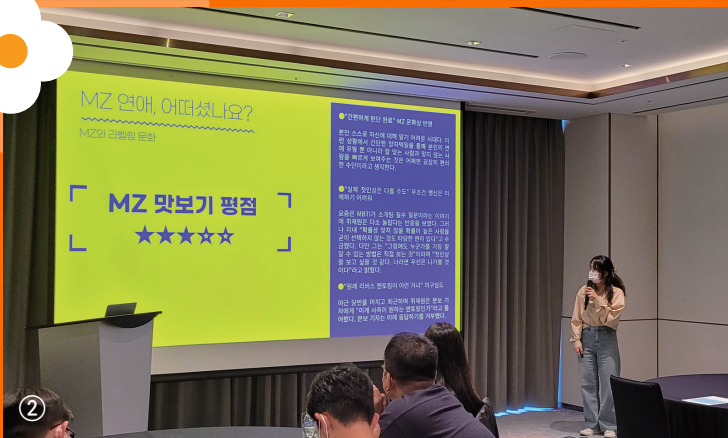


DAMG REBOOT CAMP



① 리부트 캠프 마지막 날 'Farewell 워크숍'을 마친 뒤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 하는 모습 ② Go Back to 2020 워크숍에서 수행 미션 결과를 발표하는 참가자 ③ 제주 선셋투어에서의 즐거운 한 때 ④ 천제연폭포에서 CEO와 참가자들

어느덧 DAMG 핵심인재로...2년 만에 다시 함께한 우리

제주에서 2020년 입사자 24명 '리부트 캠프' 사흘간 진행... '제주 워크숍'에서 업그레이드 해 내실 강화

파랗게 펼쳐진 가을 하늘 아래 청량한 공기가 가득했던 10월 5일 오후 제주국제 공항 앞. 24명의 동아미디어그룹(DAMG) 청춘들은 설레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2020년 DAMG의 신입 신문기자, 방송기자, 예능PD, 드라마PD, 그리고 CD가 된 이들. 코로나19 이후 2년만에 신입사원을 위해 열린 'DAMG 리부트 캠프'(이하 리부트 캠프)에서 다시 만난 이들은 어느덧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프로'로 성장한 서로의 모습에 반가운 인사를 나눴다.

사흘간 뜨겁게! 즐겁게!

리부트 캠프는 10월 5~7일 2박 3일간 제주 서귀포시 중문단지 일대에서 진행됐다. 코로나19 이전 신입사원 입문교육 마무리 과정으로 진행했던 '제주 워크숍'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코로나19로 중단한 제주 워크숍을 '리오프닝'하면서 입사 1~2년

차에게 여유와 활력을 줄 수 있는 콘셉트로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시켰다.

이번 캠프의 콘셉트는 '제주 오감(五感) 리부트'였다. 지난 2년간의 회사생활을 돌아보고, 제주에서의 휴식을 통해 각자의 오감을 일깨울 재정비 시간을 갖자는 취지였다.

참가자들은 서로 다른 직군끼리 무작위로 섞여 6개조를 짜 활동했다. △별내린전망대 도보여행 △Go Back to 2020(워크숍) △도예 클래스 △선셋 투어 △천제연 폭포 코스 도보여행 등을 다채롭게 즐기며 추억을 쌓았다.

참가자들은 특히 'Go Back to 2020'에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Go Back to 2020은 참가자들이 캠프 참가 전 부여받은 각자의 과제를 자신들이 속한 국·실·본부장 또는 부팀장과 함께 진행해 그 결과를 공유하는 워크숍이었다.

사전 과제는 총 3가지로 '어게인 리버스 멘토링', '무물쭈물(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무물쭈물 하지 말고)', '리버스 무물쭈물'이었다. 참가자와 간부들은 서로에게 다양한 주제의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한 뒤, 이를 통해 도출한 인사이트를 발표해야 했다.

미래전략연구소 X1팀 이규열 기자는 김남국 미래전략연구소장과 '기자는 왜 공부해야 하는가'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가'를 놓고 벌였던 대화를 공유했다. 미래연은 소속 기자 8명 중 5명이 박사, 1명이 석사학위 소지자라 더 뜨거운(?) 대화가 오갔다고. 드라마플러스본부 1팀 박진우PD는 같은팀 박종은 팀장에게 전수한 '패션 직구 A to Z' 리버스 멘토링 사례를 풀어냈다. 멘토링을 받은 박 팀장이 객PD에게 같이 직구 구매대행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했다는 말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편집국 국제부 김수현 기자는 '요즘 MZ

의 연애', 보도본부 외교안보국제부 권갑구 기자는 '1기라는 책임, 앵커라는 직책', 경영전략실 디스튜디오베터팀 남희진 CD는 '리그오브레전드 잘하는 법', 제작본부 김수정 PD는 '입사 후 몇 년차부터 기획안 피칭 기회를 주는게 좋을까' 등을 주제로 간부 및 선배들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전했다. 결과 발표를 들던 동기들 사이에서는 웃음이 끊임없이 터졌다.

겉고 찌고 맛보고 던지고

워크숍 사이사이에는 맛집과 매력만점 체험들을 채워넣었다. 참가자들은 약 1시간 코스인 별내린전망대 산책길에서 제주를 느끼며 인증샷을 찍었다. 도예방에서는 직접 흙반죽을 해 반공기, 화병 등 도자기를 만들었고, 주상절리 해식동굴을 둘러보면서는 바다낚시도 체험했다. 제주의 최고 맛집을 돌려 갈치조림정식, 흑

돼지구이, 전복요리정식 등을 즐겼다. 저녁 자유시간에는 동기들과 삼삼오오 맥주 한잔을 나눌 수 있었다.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대표이사는 과거 제주워크숍 때처럼 이번 리부트 캠프에서도 젊은 직원들과 함께 했다. 행사를 구성한 담당 팀은 모든 참가자가 CEO와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촘촘히 시간을 나눠 CEO일정을 짰다. 6개 조와 돌아가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니 'CEO 일정이 가장 빠셨다'는 후문.

동아일보와 채널A는 앞으로 매년 리부트 캠프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 캠프는 내년 상반기로 계획돼 있다. 코로나19로 기존 '제주 워크숍'에 가지 못했던 모든 신입사원은 순차적으로 리부트 캠프에 초대받게 된다.

경영전략실 인재경영팀 이덕한

제36회 인촌상 시상식

민족사관고등학교, 이수지 작가, 김인환 고려대 명예교수, 권성훈 서울대 교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 수상



① 10월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제36회 인촌상 시상식이 열렸다. 왼쪽부터 김재호 동아일보 채널A 대표이사, 민족사관고등학교 한만위 교장, 이수지 그림책 작가, 김인환 고려대 명예교수, 권성훈 서울대 교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 고정한 본부장, 이용훈 인촌기념회 이사장.
② 이날 시상식 전 어린이과학동아 어린이 기자들이 누리호 개발 주역들을 인터뷰하고 있다.

인촌 김성수(仁村 金性洙)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제36회 인촌상 시상식이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10월 11일 열렸다. 인촌상은 일제강점기에 동아일보를 창간하고 경성방직과 고려대를 설립한 민족 지도자 인촌 선생의 유지를 이어 나가기 위해 1987년 제정됐다.

재단법인 인촌기념회(이사장 이용훈)와 동아일보사는 인촌 선생의 탄생일인 10월 11일에 맞춰 매년 시상식을 열고 있다. 그동안 각 분야에서 묵묵히 공익을 위해 일해 온 한국의 거목들이 인촌상을 받았다. 이용훈 이사장은 “나라를 빼앗겨 어려웠던 시기에 주저하지 않고 행동에 나선 인촌 선생처럼 수상자들은 새로운 길을 개

척한 선구자들”이라며 “인촌상 수상을 계기로 더 빛나는 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수상자들은 이날 시상식에서 각각 상장과 메달, 상금 1억 원을 받았다.

교육 부문 수상은 강원 횡성군 민족사관고등학교에게 돌아갔다. 민사고는 입시 위주가 아닌 자율에 기반한 교육을 추구하면서도 다수의 학생들을 명문대에 진학시켰다. 한만위 교장(62)은 “민족을 가슴에 새기고 세계를 품 안에 담을 진정한 지도자를 계속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언론·문화 부문은 이수지 그림책 작가(48)가 수상했다. 이 작가는 올해 3월 한국인 최초로 ‘어린이책의 노벨 문학상’으로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그림

작가 부문을 수상했다. 이 작가는 “인촌상이 가장 근본적이고 열려 있는 태도를 담고 있는 예술 장르인 그림책에 주목하고 공헌을 인정해줬다”고 화답했다.

김인환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76)는 인문·사회 부문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기존 문이론에 기대지 않고 한국 문학 작품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문학의 4가지 개념인 운율과 비유, 구성, 문체를 정립했다. 김 교수는 “인촌 선생의 공선사후(公先私後)와 동일한 의미인 극기복례(克己復禮)는 사심을 극복하고 공동선을 실현한다는 뜻으로, 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성훈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47)는 과학·기술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권 교수는 개인별 맞춤형학용 진단 기술을 개발해 온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권 교수는 “전 세계 병원에서 우리 장비를 써서 매일 많은 환자들이 위기를 넘기고 살아가는 미래를 생각하면 행복하다”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는 올 6월 누리호 발사를 성공으로 이끈 주역으로 특별상을 받았다. 고정한 본부장은 “지난해 1차 발사의 아쉬운 실패에도 많은 국민의 응원으로 더 힘을 낼 수 있었다”고 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어린이과학동아 어린이 기자들이 항우연 한국형발사체 개발 주역들을 인터뷰하는 이벤트도 진행됐다.

또 어린이 기자들은 특별상 시상 뒤 연단에 올라 누리호 발사 성공에 대한 소감을 발표하기도 했다. 어린이가 인촌상 무대에 오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터뷰 시간에 나는 질문과 대화는 어린이과학동아에도 실릴 예정이다.

한편 제36회 인촌상 시상식은 3년 만에 정상 개최로 진행됐다. 코로나19에 따라 2020년과 2021년은 각각 축소개최와 약식개최로 진행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행사부터는 LED 무대를 도입했다. 덕분에 수상자의 업적 영상이 더 웅장하고 선명하게 전개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편집국 문화부 이호재

2022 리스타트 잡페어 성황리 개최

3년 만에 오프라인 대면 행사로 진행...3만여 명 찾아 열기 더해



10월 19,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리스타트 잡페어 박람회 광경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대표 일자리 박람회 ‘2022 리스타트 잡페어, 다시 일상으로 다시 일자리’가 10월 19, 20일 이틀간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리스타트 잡페어는 청년, 경력단절 여성과 신(新)중년까지 다양한 구직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일자리 박람회로 올해 10회를 맞았다.

이번 리스타트 잡페어는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 3년 만에 오프라인 대면 행사로 열려 그 의미가 더 컸다. 이에 걸맞게 역대 최대 규모인 134개 기업 및 기관이 152개 부스를 차렸다. 엔데믹 시대에 맞춰 ‘일대일 멘토링관’과 ‘플랫폼 리스타트관’을 신설했고 ‘일자리 리스타트관’ ‘공공기관 리스타트관’을 꾸려 내실을 더했다. 그 결과 이틀 간 총 3만여 명의 방문객이 박람회를 찾아 높은 열기를 실감케 했다.

19일 오전 개막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공식 투어가 끝난 뒤에도 쿠팡, 중기부, 해병대 부스 등을 추가로 둘러보면서 행사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한 총리는 동아일보·

채널A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응원하며 “정부가 더 열심히 하겠다”고 채용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올해 행사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곳은 멘토링관이었다. 이곳에서는 구글 코리아, 우아한형제들 등 구직자들의 관심이 높은 기업의 선배 취업자들이 일대일 상담을 제공했다. 당초 사전 신청자들만 상담을 받도록 했지만 현장의 뜨거운 반응에 각 기업 담당자들이 자발적으로 추가 시간을 내기도 했다.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스타벅스, GS리테일, 신한은행 등 탄탄한 대기업과 중기부 선정 ‘참 괜찮은 중소기업’ 부스에도 종일 구직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인생 이모작을 위해 정장을 차려입고 온 신중년, 현장 채용 기회를 얻으러 온 취업 준비생이 행사장에 가득했다. 일부 부스에서는 면접 전형 진출자도 속속 나왔다.

유튜버 대도서관의 덕업일치 강연을 비롯해 무스펙 취업왕의 비법전수, 일하는 여성의 자기개발 등 알차게 짜인 강연 프로그램 또한 청중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리스타트 인생 네트’, ‘취업타로’ 등 재밌는 부대 이벤트는 구직자 뿐 아니라 광장을 찾은 시민들도 함께 즐겼다.

편집국 산업2부 박선희



중립기어 박고 설명해 드립니다

유튜브 라이브 <중립기어> 런칭...동아일보 세 부국장, 정치 경제 안보 분야 차별화한 인사이트 전해

동아일보의 첫 번째 유튜브 오리지널 라이브 <중립기어>가 10월 17일 첫 선을 보였다. 채널A 정부 외교안보팀을 거쳐 동아일보 정치부 정당팀에서 취재 중인 9년차 조아라 기자가 진행을 맡고 이승헌 박용 신석호 등 편집국 부국장 세 명이 번갈아 출연한다. 기자 경력 도합 77년차인 세 부국장은 각각 정치와 경제, 한반도 분야 전문가로, 정확한 팩트체크와 함께 차별화 된 인사이트를 전달 예정이다.

타이틀 <중립기어>는 '중립기어를 박자'는 온라인 표현에서 가져왔다. 확인되지 않은 폭로나 의혹에 근거해 누군가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거나 논란이 커질 때, 팩트 확인부터 하자는 의미다. 기계적 균형이 아닌, 팩트에 근거한 합리적 판단이 가능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게 목표다.

<중립기어>의 차별화 포인트는 사람이다. 신문 제작 현장을 책임지는 부국장 세 명의 전문성, 취재 현장에 있는 조 기자의 생생한 정보력이 가장 큰 무기다. 부

국장들은 중립기어 출연 전 단독 팩트 확인을 위해 따로 시간을 내 취재를 진행하고 있다. 조 기자도 국회 취재원을 총동원해 정보를 확인하고 직접 구성안을 쓴다. X세대 선배 기자와 MZ세대 후배 기자가 함께 제작하고 진행하는 컨셉도 <중립기어>의 강점이다.

한편, <중립기어>라는 타이틀은 이른바 'B컷' 후보였다. 그러나 "기발하다" "젊은 감각"이라는 반응이 많아 최종 타이틀로 낙점됐다. 꼼꼼하고 신중한 팩트 체크를 중요시하는 동아일보의 이미지와도 잘 맞는다는 평가도 나왔다.

<중립기어>는 자극적이고 편향적인 콘텐츠가 넘치는 유튜브 세상에서 '히어로 콘텐츠'처럼 동아일보의 지향점을 보여줄 예정이다. 그 모습은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1시에 만날 수 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은 필수.

편집국 디지털뉴스팀 이성호



① 라이브 현장의 편집국 박용 부국장 and 정치부 조아라 기자 ② 왼쪽부터 편집국 이승헌, 박용, 신석호 부국장

새롭게 확 달라진 <도쿄의 정서> 시즌2



기자의 시선으로 일본 사회 현상 분석...
숏폼 콘텐츠도 활발히 제작



일본 맥도날드를 방문해 이색 풍경을 소개하고 경제부 기자 관점에서 분석한 <도쿄의 정서> 시즌2 장면

<도쿄의 정서> 시즌2가 10월 14일 동아미디어그룹 기자들의 유튜브 채널 '기웃기웃'을 통해 돌아왔다. 일본 유학생의 일상을 보여준 시즌1과 달리 일본 사회 현상에 대해 '왜?'를 따져 묻는 콘텐츠를 공개한다.

기자는 10월 21일 도쿄 신주쿠 맥도날드 매장을 방문해 맥도날드 현지화 전략을 다룬 콘텐츠를 공개했다. 가게 내부 인테리어, 점원이 음식을 서빙하는 모습, 일본에서 출시된 츠키미버거(달맞이버거) 등 이색 풍경을 소개하며 시청자들이 실제 방문한 듯한 느낌을 전달했다. 맥도날드의 일본 내 성장세, 한국과 일본의 물가 지표로

인용되는 '빅맥지수' 비교 등 경제부 출신 기자로서의 분석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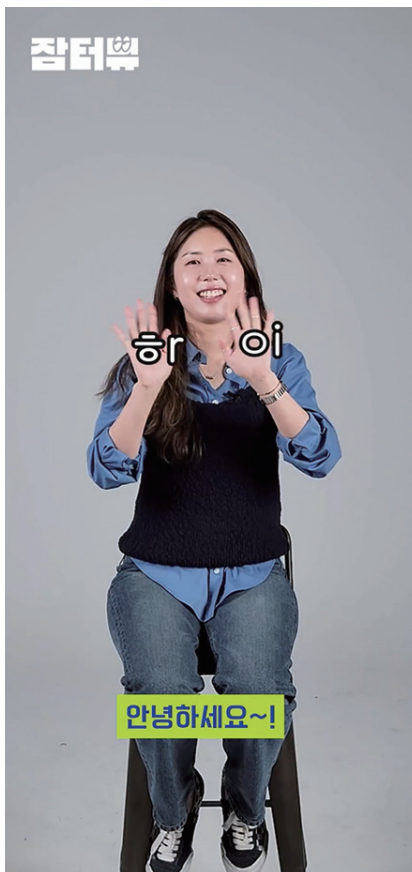
숏폼 콘텐츠도 시즌1보다 활발하게 제작할 예정이다. 시즌1 일본의 외국인 입국 제한을 다룬 <여러분 일본 여행 아직 못 갑니다...>편은 조회수 7만 9000회를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시즌2에서도 국내 출시가 임박한 애플페이 시연 콘텐츠를 숏폼으로 제작해 호응을 얻었다. 발빠른 트렌드 소식에 대한 시청자 수요가 큰 만큼, 앞으로 더 다채로운 숏폼을 제작할 예정이다.

보도본부 박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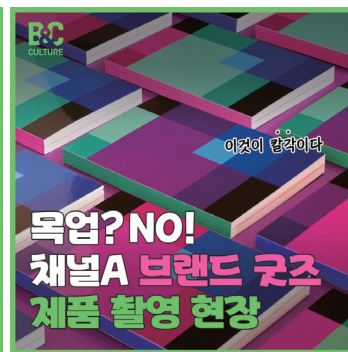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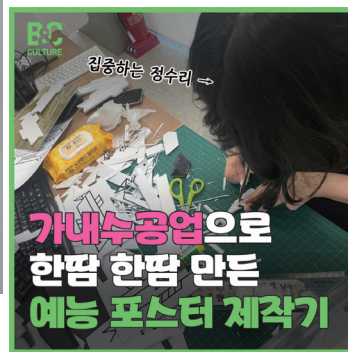
뛰어난 역량과 조직문화 알리는 채널A B&C



SNS를 통한 참신한 홍보로 채용문의도 급증



채널A B&C 직원 인터뷰가 담긴 <잠터뷰>(왼쪽)와 제작 촬영 후기를 공유하는 <B&C 컬처>(오른쪽)



채널A B&C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channela_bnc)을 통해 역량과 조직문화를 활발하게 홍보하고 있다. <잠터뷰(잠시 인터뷰 가능?)>와 <B&C 컬처> 등 MZ세대 취향 코너를 연재하며 인지도를 쌓고 있다.

<잠터뷰>는 채널A B&C 직원 인터뷰를 통해 직무를 소개하고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코너다. '경험이 중요하니 외주제작실에서 단계를 밟아 이직하는

것이 좋다', '비전공자라도 디자이너 직군에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 등 취업준비생들이 참고할만한 조언이 담겨있다. <B&C 컬처>는 채널A B&C의 역량과 조직문화를 홍보한다. 프로그램 포스터 제작기, 촬영 현장을 공개해 구독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문화의 날, 운동회 등 채널A B&C의 일상을 공개하며 젊은 조직문화를 알리고 있다.

연재 이후 채널A B&C에는 취업준

비생들의 채용 문의가 2배 이상 늘었다. 채널A B&C는 앞으로도 다양한 코너를 활용해 외부와의 소통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채널A B&C 관계자는 "탁월한 조직문화는 좋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핵심 요소"라며 "채널A B&C의 가능성을 널리 알려 회사를 성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채널A B&C 비주얼브랜드팀 유지상

새로움에 도전하는 채널A 미디어커머스

라이브커머스 <어서올쇼> 첫방송... IP상품 전시한 쇼룸 마련



라이브커머스 <어서올쇼> 방송 현장(위)과 쇼룸 'SHOP-OTT.COM'의 모습

“라이브커머스 <어서올쇼>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 10월 25일 저녁 7시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 The8 스튜디오. 오티티닷컴 라이브커머스 방송 <어서올쇼>가 문을 열었다. <어서올쇼>는 ‘어서 오십시오’와 ‘오티티닷컴’의 합성어로, 소비자가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오티티닷컴을 찾길 바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김수영 쇼호스트가 진행한 첫 방송에서는 채널A 대표 프로그램 <금쪽같은 내

새끼>가 침구 전문 브랜드 ‘홈랩’과 콜라보해 내놓은 제품들을 선보였다. 11월 출시 예정인 금쪽이 낮잠 이불, 키즈 베딩 세트를 처음 공개했다. 이미 큰 인기를 끈 금쪽이 베개도 함께 판매해 주목을 받았다.

시청자들은 댓글창의 쌍방향 대화를 통해 제품에 대한 문의를 이어갔다. ‘낮잠 이불은 베개가 붙어있나요’, ‘sk사이즈가 무슨 뜻인가요?’ 등 질문에 쇼호스트는 실시간 설명을 이어갔다. 적극적으로 채팅에 참여한 고객을 위한 소통왕 이벤트

와 그림퀴즈 이벤트 또한 시청자들의 참여열기를 북돋웠다.

<어서올쇼>는 채널A IP상품을 판매하는 미디어커머스와 디지털콘텐츠를 제작하는 디스튜디오베타팀의 협력으로 이뤄졌다. 미디어커머스는 “제작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콘텐츠 커머스 시장에 대응하고 채널A만의 색깔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 6층 콘텐츠사업본부 입구에는 쇼룸이 설치됐다. 이름은 채널A 온라인쇼핑몰 주소와 동일한 ‘SHOP-OTT.COM’. 외부인사는 물론 동아미디어그룹 직원들도 채널A IP상품을 구경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이다.

쇼룸은 <하트시그널>, <강철부대>, <금쪽같은 내새끼> 등 공식 굿즈, 패션브랜드 ‘비도우’ 상품, DAMG 브랜드 상품 등 다양한 상품들로 꾸며졌다. 미디어커머스는 앞으로 더 많은 히트 상품들을 개발해 쇼룸을 채워나갈 예정이다.

콘텐츠사업본부 미디어커머스팀 고희석

▼ New face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이름 / 부서 ① 입사 후 포부 ② 요즘 관심사 ③ 최종 직장



조관형 / 동아일보
편집국 정치부

① 선배들과 한국기자상 대상을 수상하는 것입니다. 팀웍으로 취재 난관을 돌파하고 진실을 찾아내고 싶습니다. 세상을 흔드는 기사를 보도한 뒤 시민들에게 치하받으면 좋겠습니다.
② 등산입니다. 삼 년 전부터 종종 갑니다. 설악산, 지리산, 덕유산, 영남알프스 등지를 다녀왔습니다. 속리산, 오대산, 태백산도 가보려 합니다. 마음 맞는 선배들과 가면 좋겠습니다.
③ 서울경제신문



남혜정 / 동아일보
편집국 산업1부

① 패딩을 입고 짐을 어깨에 가득 진 채 강남서에 도착해 ‘기사가 어디에 있을까’ 눈을 반짝였던 2015년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초심의 설렘과 패기로 좋은 기사 많이 쓰겠습니다.
② 직전까지 산업부에서 가전반도데, IT를 조금씩 경험했습니다. 새로 출시된 가전모바일 제품 장단을 비교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살펴보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③ 세계일보



한재희 / 동아일보
편집국 산업1부

① 동아일보 대학생 인턴을 10년 전에 했습니다. 아) 아주 오래 걸려 정식 일원이 된 만큼 일 ‘일잘러’(일 잘하는 사람)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② 귀찮아 말고 매일 영어공부를 하고, 미술 서적을 많이 읽으려 하고, 건강을 위해 근력 운동을 하자 다짐하고, 동아일보에 잘 적응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③ 서울신문



윤명진 / 동아일보
편집국 경제부

① “요명진 기사는 확인 안 하고 받아 써도 되지”라는 말을 듣는 것이 목표입니다. 수많은 기사들이 매일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보도를 하고 싶습니다.
② 저의 관심사는 캠핑입니다. 혼자만의 재충전 시간을 가질 때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산과 바다 등의 자연을 보며 생각을 정리하고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③ 문화일보



최은진 / 동아일보
편집국 문화부

① 하루하루 쓴 기사가 사장되지 않고 널리 퍼져 읽히길 희망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울림을 주는 기사로 ‘뉴스 기피’ 현상을 이겨내겠습니다. 한 명의 독자라도 더 붙잡기 위해 늘 고민하겠습니다.
② 자들은 대체 왜 싸울까. 다양한 갈등의 요인과 배경에 관심이 많습니다. 선과 악으로 구분해 극한으로 치닫는 갈등에 주목할 때 건전한 갈등으로의 선순환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③ 서울신문



이다희 / 동아일보
AD본부 광고총괄기획팀

① 입사 후 제가 맡게 될 직무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하는 열정 가득한 신입사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동료분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감에 회사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겠습니다.
② 저의 요즘 관심사는 피부 관리입니다. 올해부터 피부에 트러블이 나기 시작하여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 해결을 위해 제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들을 찾아보다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③ 태권도진흥재단



지오성 / 동아일보
경영지원국 시설관리팀

① 동아미디어센터에서 근무하며 제가 공부한 전기 업무에 관하여 깊은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것이 목표입니다.
② 현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으며 전기기사 자격증의 응시 조건이 최근 충족되어 내년 필기시험을 준비중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않고 계속 도전해 나갈 것 입니다.
③ 건국대학교병영 시설관리 전기팀



신수라 / 동아일보
지식서비스센터
아카이브기획파트

①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동아일보에서 신문과 사진아카이브의 관리부터 다양한 기록을 활용한 양질의 콘텐츠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아카이브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② 저는 요즘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달리기, 테니스, 헬스 등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건강한 삶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③ 태권도진흥재단



정지호 / 채널A
경영지원본부 인사팀

① 입사 첫 날의 설렘과 긴장을 잊지 않고 모든 일에 책임감을 가지는 인사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② 저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요즘 주로 찍고 있는 것들은 단풍 사진이나 퇴근할 때 회사 근처 빌딩들을 찍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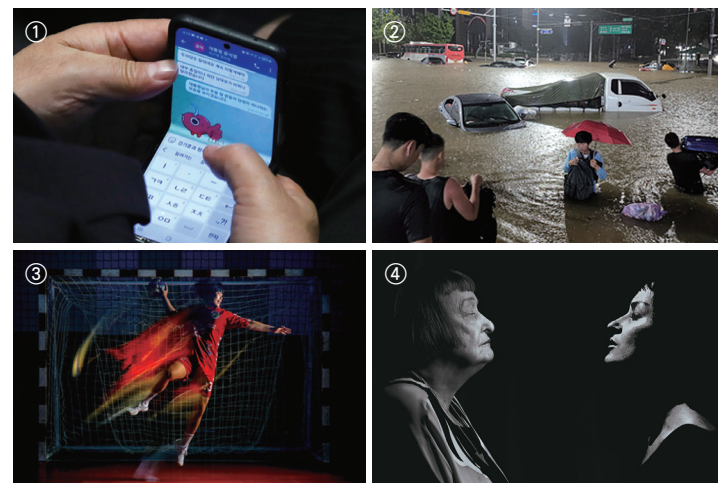
DAMG 수상소식

편집국 편집부 황준하 부장 한국편집상 우수상



편집국 편집부 황준하 부장이 10월 26일 한국편집기자협회가 시상하는 제28회 한국편집상 우수상을 받았다. 황 부장은 6월 3일자 1면에 실린 ‘63 대 145 참패...’기초’까지 흔들린 민주당’ 제목을 통해 비유적이면서도 직관적으로 6·1지방선거 선거결과를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편집국 사진부 이달의 보도사진상 4건 수상



편집국 사진부 기자들이 한국사진기자협회가 10월 26일 발표한 7~9월 이달의 보도사진상을 잇달아 수상했다. 원대연 차장은 ‘尹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 바뀌니 달라져’ (7월 사진 ①로, 전영환 부장은 ‘강남역

주변 몰바다’(8월 ②로) 각각 뉴스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양희성 기자는 ‘세계선수권 MVP ‘18세 우생손’ 김민서’(③로) 8월 포토레이트 부문 최우수상을, ‘아흔 넷 서른 다섯’(④)으로 9월 같은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채널A B&C ‘아시아 브랜드 프라이즈 2022’ 수상



채널A B&C가 ‘아시아 브랜드 프라이즈 2022(Asia Brand Prize 2022)’에서 그랜드 프라이즈(Grand Prize)와 워너(Winner)상을 수상했다.

출품작의 1%에만 주어지는 그랜드 프라이즈(Grand Prize)는 채널A 10주년 기념 통합 브랜드 <스마일 이즈 굿>에게 수여됐다.

DBR 향수 클라우드 펀딩



미래전략연구소가 DBR 장기 애독자를 대상으로 배포한 향수 ‘REPLY’가 독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미래연은 직장인의 감정을 월화수목금요일에 따라 지루함, 긴장감, 산만함,

피곤함, 기다림으로 설정하고 이를 치유해 주는 향을 굿즈로 제작했다.

9월 제작한 ‘REPLY’는 약 1000여 명의 굿즈 수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판매용 제품으로 출시하면 구매하겠다’는 의견이 91%에 달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미래연은 이에 힘입어 11월에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텀블벅’에서 펀딩을 통한 향수 판매에 도전한다

미래전략연구소 사업전략팀 양민석

강철부대 맥주 11월 출시



<강철부대>를 향한 시청자들의 사랑에 힘입어 강철부대 맥주가 출시됐다. 맥주 종주국인 독일 양조장과 협업을 탄생한 라거 맥주다. 11월부터 전국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편의점에서 만날 수 있다. 4캔에 9,900원.